

제6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이재활 당선자 간담회 회의록

회의 개 요	일 시	2016.12.27.(화) 15:00~
	장 소	대경 한정식(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2길 12(053-761-3161))
	참 석 자	이재활(당선자), 구웅(대구장애인배구협회 전무이사), - 대의원 : 김건주(광주장애인배구협회 전무이사;위임), 송영석(울산 장애인배구협회장), 정종만(전북장애인배구협회장), 김병옥(전남장애인배구협회장), 이영길(경남장애인배구협회장), 고은실(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), 대전장애인배구협회 부회장(대한지적장애인배구협회장, 대전광역시장애인배구협회장: 위임), 이교인(경북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) - 선수위원회 : 박정식(위원장), 박미숙(부위원장), 정미성, 유순자 - 지도자협의회 : 임창수(위원장) - 심판위원회 : 김건중(위원장), 이민아 - 기타 : 김정섭(前.전북장애인배구협회장), 김정섭회장 사모님 -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후원회 회장 : 이재순 회장님 총 20명
	회의안전 및 보고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안 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제6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운영 관련 건의 및 토론
기타 토의사항	없음.	
토론 및 건의사항		
<p>[이재활 당선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6대 집행부는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배구 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,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개편되는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걸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다. · 약속한 공약은 모두 지키겠지만 특히,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다. <p>[간담회 참석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수위원회 설치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하고 모든 일정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다. · 회장 당선과 관련하여, 사무국 직원들의 향방에 대해 문의하다. · ○○장애인배구협회장이 작성해온 “회장 간담회 자료” 를 설명하고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하다 		
회장 간담회 자료		
1. 이사진 선임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역이사도 참여 하도록 해야 함.		

제6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이재할 당선자 간담회 회의록

- 2. 모든 배구가 천안팀 위주로 되어서는 안된다. 생활체육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함.
- 3. ○○장애인배구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좌식비치발리볼대회 활성화를 위해 협회 중앙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.

- 협회 운영에 있어서 5대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여 불협화음만 생기도록 하지말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, 법규, 절차 등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.
- 국제지도자(국내지도자 포함) 양성 관련 지원 및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다.
- 장애인배구협회가 결성된 원래 목적에 따라 “지적장애인배구협회”를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, 협회에 “지적분과”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고, 지적 및 청각 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협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다.
- 전국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배구 관련 내용을 전수조사하여 줄 것과, 성인 지적 장애인 배구 경기를 활성화하고 전국체전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.
- 장애인배구 선수들 중에 주소지와 별개로 타지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 전국체전 참가 관련 규정을 제정비 할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적극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다.
 - 현행 규정상 2018년도 부터는 선수 등록주소지 기준으로 전국체전 참가 가능
- 협회 운영에 있어 사소한 것이라도 선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달라고 요구하다.
- 협회 정상화를 위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협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고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요구하다.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후 강력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다.
 - 기존 협회가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 잡아 달라.
 - 국가대표 차출 거부(항명) 사건, 성명서 사건, 지도자 징계 건 등 모든 징계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징계를 마무리 해달라고 하다. 특히, 경기 출장 정지, 국가대표 미선발 등 눈에 보이는 징계를 요구하다.
 -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개입하거나,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들을 유포하는 인사들 모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는 장애인배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깨끗이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.
 - 여성 장애인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대표 훈련 활성화, 국제대회 참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을 요구하다.
 -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는 국제연맹이 정한 자격(최소한 국제대회 1회 참가)을 획득해야함으로 남자팀, 여자팀 모두 아시안게임 전 국제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요구하다.
- 기존 코칭스텝들은 장애인배구에 대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들 중에 플레이 코치를 운영하여 지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도록 요구하다

제6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이재활 당선자 간담회 회의록

- 의무등급과 관련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다.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다시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의무등급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. 단, 절단, 소아마비, 국제대회 참가자 등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해도 무방하다. 그리고, 한시적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가 더러 있는데, 한시적 등급은 없앨 수 있도록 요구하다.
- 여자선수들의 경우 선수출신들 중에 최소장애(MD)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들과의 마찰로 인해 장애인배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.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.
- 심판과 선수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다.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, 여전히 대회장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.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.
-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착용하는 심판복장인 대한배구협회에서 사용되는 기준이다. 우리 장애인배구협회에서 별도로 심판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만의 심판복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다.
- 대회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, 컨트롤타워를 통해 경기부(경기감독관)와 심판부(심판감독관)로 분리하여 최적의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다.
-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일괄 정한 심판비 8만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. 이에 대해 심판들의 개선요구가 많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다.
- 지역대회의 경우 각 지부에서 심판비, 숙소 배정 경비, 식사 등을 제공함에 따라 심판들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회에서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- 국가대표 선발, 훈련, 차출 등 연중 소속팀 선수와 지도자간에 협의하여 국가적인 활동 최적화를 위해 전임지도자 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- 지도자 세미나, 심판세미나, 선수위원회 세미나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기타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.

붙임자료

없음.

2016. 12. 27.